

일본 에히메의 「히메 다루마」와 신공황후전승

노성환*

(e-mail : nosh1@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제작의 역사와 타 지역의 히메 다루마 |
| 2. 히메 다루마의 기원설화 | 5. 마무리 |
| 3. 에히메의 신공황후전승 | |

キーワード : 姫達磨(Himedaruma), 愛媛(Ehime), 神功皇后(jingukogo), 松山(Matsuyama), 道後(Dogo)

1. 머리말

일본은 인형의 나라이다. 어느 집, 어느 가게를 가보아도 장식 인형이 한두 개 놓여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일본인들은 장식 인형을 좋아하는다. 그 중에는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는 동물과 아이의 인형으로부터 최근 유행하는 지역의 캐릭터까지 종류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무수히 많다. 그 중에는 주로 상점에서 장식되는 것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진 인형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복을 부르는 「마네키네코(招猫)」라 불리는 손짓하는 고양이, 어린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에도시대 때 성인의 복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는 후쿠스케(福助), 불이 도톰하여 복스러운 중년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오타후쿠(お多福),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다루마(達磨) 등이 있다.

본고는 그 중에서 다루마에 관심을 가지되, 특히 그 중에서도 에히메현(愛媛

* 울산대학교 국제학부 일본어일본학전공 교수

県)에서 생산되는 「히메 다루마(姫だるま)」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흔히 「다루마」라고 하면 우리는 손발이 없고 얼굴과 몸통만 있는 오투기 인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본에서도 그러한 점은 우리와 공통되나, 몸통에 붙어있는 얼굴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외국인 남자의 모습을 연상한다. 그러나 에히메의 「히메 다루마」는 이러한 「다루마」 인형과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히메」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남자가 아닌 젊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눈의 표정도 초롱초롱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눈망울을 짓고 있다. 이 점도 기존의 것과 완전히 다른 점이다.

이러한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연구된 바가 없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에히메의 「히메 다루마」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다루마 인형」이란 불교에 있어서 선종의 개조인 달마대사(達磨大師)가 좌선을 하는 모습을 본 따 만든 인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종교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길상을 나타내는 좋은 의미를 지닌 장식 인형으로 널리 애호되고 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눈을 부릅뜬 이국인 얼굴에, 수족도 없이 적색의 옷을 입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인도 출신인 달마대사 5-6세기경 중국으로 건너와 낙양(洛陽) 근교 송산(嵩山) 소림사(少林寺)에서 벽을 바라보고 9년간 참선 수행할 때 수족이 썩어 문드러졌기에 수족이 없으며, 또 그 때 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눈꺼풀을 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며, 처음에는 인도의 승려옷 색깔인 황색을 입고 있었으나 에도시대 이후 일본인들이 벽사의 기능을 가진 적색으로 바꾸어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가끔 매우 특이하게도 눈알이 그려져 있지 않은 다루마 인형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소유자가 눈을 그려 넣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 이후에 주인이 눈을 그려 넣는다. 이것은 마치 불상 또는 불화에 눈을 그려 넣음으로써 혼을 불어넣는 개안(또는 점안)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종의 정해진 의도와 방법이 있다. 특별히 소원을 빌 때 그러한 다루마를 제작하는 것이다. 방법은 먼저 길일을 택하여 다루마의 왼쪽 눈, 즉, 다루마를 향해 오른쪽 눈에다 먹으로 그려 넣으며 소원을 빈 다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머지 한쪽 눈에 동자

를 그려 넣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흔히 선거 때 자주 보이는데, 입후보자 선거사무실에 다루마 인형을 장식해놓고, 당선이 되면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서 축하를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에히메의 「히메 다루마」는 손발이 없는 것은 다른 「다루마」 인형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모습이 두 눈을 부릅뜨지도 않았고, 붉은 옷도 입지 않았으며, 또 두 눈도 뚜렷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인형을 에히메에서는 어떠한 유래가 있기에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또 그것이 에히메만이 있는 독특한 문화의 산물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히메다루마의 기원설화

한국인에게 에히메현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에히메는 일본열도 가운데 혼슈(本州) 바로 밑에 있는 시코쿠(四国)라는 섬의 서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청소재지는 마쓰야마시(松山市)이다. 한국과 연결하는 국제공항도 바로 이곳에 있다. 에히메라는 지명도 매우 흥미롭다. 한자로 「애원(愛媛)」이라고 쓰고, 읽기를 「에히메」라고 한다. 이 점도 매우 독특하다. 왜냐하면 보통 일본어에서 「애(愛)」를 「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애=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히메」란 사랑스럽고 우아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고장은 여성과 관련짓기 쉽다.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특산물로 「히메 다루마」가 제작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이 지역의 상징인 「히메 다루마」는 마쓰야마 공항 국제선의 면세점에서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을 이용하여 외국을 드나드는 국내외인을 의식한 탓인지 상품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되어있다. 그 설명문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서술되어있는 사실이다. 그 내용에 대해 한국어로 되어있는 설명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히메다루마는 옛날부터 사랑받아 온 에히메의 향토장난감입니다. 지금은 도고온천의 마스코트적인 존재입니다. 에히메에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소중히 만들고 있습니다. 4세기 무렵, 진구(神功)황후가 도고온천에 머물렀을 때, 회임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옛날부터 마쓰야마 이요즈히코노미코토신사의 츠바키 축제에서도 행운의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히메 다루마」는 에히메를 대표하는 인형으로 마쓰야마의 도고(道後) 온천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까마득한 옛날 4세기경 중애천황(仲哀天皇)의 부인인 신공황후(神功皇后)가 도고온천에 들러 머물면서 회임한 것을 본따서 만든 행운의 상징물이라는 것이다. 즉, 히메란 임신한 신공황후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복을 부르는 인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에히메에서는 그것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건강하게 자라고, 또 병자들이 「히메 다루마」를 장식해두면 병이 빨리 낫는다는 신앙이 있다. 그리고 「히메 다루마」는 임신한 여성(신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임신부에게 있어서 안산(安産)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그리고 미혼 여성이 자신의 생일에 지인들로부터 이 인형을 선물로 받으면 1년 이내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속신마저 있다. 그러므로 에히메(특히 마쓰야마) 사람들의 집에는 적어도 한 두 개의 「히메 다루마」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그런데 이 인형의 모델이 된 신공황후는 어떤 인물인가? 신공황후를 기록한 서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중 가장 빠른 것이 8세기에 성립된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이다. 이 두 문헌에 수록된 내용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나, 전체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문헌에 기록된 것을 종합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2>

중애천황이 구마소족(熊曾族)을 정벌하기 위해 쓰쿠시(筑紫)에 머물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천황이 다케우치스쿠네(武内宿禰)로 하여금 신탁을 받게 하였더니, 그 신탁은 신공황후에게 내려져 말하기를 “서쪽에 나라가 있다. 그곳에는 금은보화 잔뜩 있으니 그곳을 정벌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천황은 믿지를

않았다. 그러자 신은 노여워하며 천황을 숨지게 하였다. 이를 본 신하들은 깜짝 놀라 천황의 시신을 안치하고 모든 부정스러운 짓을 그만두고, 다시 신탁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의 신탁이 내려졌고, 일본은 태증왕자(咫神天皇)가 다스려야 나라이며, 이 신탁은 태양의 여신이자 천황계의 직계 선조인 아마테라스신(天照大神)의 의도에 의해 스미요시신(住吉神)을 통해 신탁을 내리는 것이라 했다. 그 때 신공황후는 임신한 상태여서 몸이 무거웠다. 그럼에도 신탁을 받들어 출산을 억제하는 돌을 허리춤에 매달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한 다음 군사를 이끌고 서쪽에 있는 신라로 쳐들어가는 신라를 비롯한 백제, 고구려마저 복속하고 돌아와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공의 삼한(三韓=고대한국)정벌담이다¹⁾.

이상에서 보듯이 위의 내용은 신의 명령에 의해 신공황후가 우리나라 삼한을 정벌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조선총독부를 건물을 지었을 때 중앙홀의 천정 벽화에 신공황후의 삼한정벌담을 그려 넣었다. 즉, 이들의 조선 지배는 신공의 정벌을 재현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용 그 자체로 보면 그것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령 구마소 정벌을 갑자기 그만 두고 서쪽 신라로 쳐들어가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거니와, 임신하여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정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 더구나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돌을 허리춤에 매달았다는 기이하기까지 하다. 그리하여 신화학계에서는 그것을 삼한(신라)정벌담으로 보지 않고 신화적 제의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문학의 황폐강은 신공의 모계가 신라계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그녀의 신라정벌담은 신라지향의 제의이며, 일종의 재생의 의미를 띤 친정나들이로 보았다.²⁾ 그에 비해 민속학의 노성환은 새로운 왕권탄생을 위한 타계로의 여행이라 하면서 아무런 피해를 주지도 않고 위협적이지 않은 신라를 갑자기 쳐들어가는 행위는 마치 도깨비 나라에 쳐들어가 보물을 약탈해 오는 일본의 고전적인 소년 영웅 모모타로(桃太郎)과도 같다고 했다³⁾.

그런데 이러한 신공황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도고온천에 들렀다는 말인가? 이상의 공항 면세점의 「히메 다루마」에 대한 설명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1) 노성환 역주(2009) 『고사기』 민속원, pp.209-213.

2) 황폐강(1980) 「일본 신화 속의 한국」 『한국학보(20)』, 일지사, pp.20-21.

3) 노성환(1995) 『한일왕권신화』 울산대출판부, pp.199-203.

내용을 기록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도고온천의 상가에서 파는 상품의 설명문에는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3>

옛날부터 전해지는 도고 「히메 다루마」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옛날 신공황후가 도고온천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회임하였고, 치쿠젠(筑前)에서 응신천황을 출산하였습니다. 진홍(眞紅)의 솜에 싸인 가련한 유아 모습을 기념하여 추상(追想)하고 만든 것이 「히메 다루마」라고 합니다. 안산의 수호신으로서 출산과 병의 완쾌를 기원하는 것으로서 자주 선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빨간 옷에 통통한 얼굴을 히메다루마는 신공황후의 회임을 모방한 것이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니시키 다루마(錦だるま)」는 전장에 나가는 남장을 한 신공황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에히메현의 「히메 다루마」는 어린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는 서민의 마스코트로서 이용되며, 또 결혼, 신축, 생일의 축하선물 그리고 명절선물에도 이용되며, 복을 부르는 다루마로서 진중(珍重)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도고온천의 상점 측 설명이 면세점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위의 것을 정리하면 「히메 다루마」의 기원은 분명치가 않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신공황후가 도고온천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형이 있는데, 하나는 신공황후의 회임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 「히메 다루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공황후가 신라로 쳐들어가기 위해 남장(전투복장)의 옷을 걸친 모습을 연상하여 만든 것이 「니시키 다루마」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인형이 남녀의 한쌍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 성장과 행복을 포함하여 안산, 치병, 결혼, 신축, 생일, 명절의 선물 또는 초복의 인형으로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설명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히메다루마의 기원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신공황후의 전승이며, 둘째, 신공황후의 기원설에 입각한다면 그것은 삼한(혹은 쿠마소)을 정벌하기 위해 야마토를 떠나 규슈로 향하는 도중 에히메에 들렀을 때 임신한 모습을 가정하여 만들었다

는 것이고, 셋째는 공향면세점을 포함한 상점가 측에서는 신공의 해외(특히 한반도) 정벌 요소를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히메 다루마」의 기원에 대해 다른 설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오노 미치토키(河野通時:?-1281)의 딸이라는 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4>

고오노 미치토키는 몽고의 침입 때 전사한 에히메의 호족이었다. 그의 딸은 오랫동안 의안사(義安寺)에 머물며 전사한 아버지의 명복을 빌다가 죽었다. 이 절은 선종의 사찰이었기 때문에 오뚜기 달마에 딸의 얼굴을 그려 공양하였는데, 이것이 이요(伊予) 히메다루마의 시작이었다4).

여기에서 보듯이 위의 설명은 신공황후와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고, 몽고의 침입 때 전사한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기도하다가 죽은 효녀의 상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주인공이 고오노 미치토키의 딸이다. 고오노 미치토키는 고오노 미치쓰구(河野通繼)의 아우이자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의 에히메 지역에서 활약했던 무장(武將)이었다. 그러한 그가 1281년(弘安4) 몽고와 고려가 일본을 침입하였을 때 조카인 고오노 미치아리(河野通有)와 더불어 이요(伊予)의 수군(水軍)을 이끌고 하카다만(博多灣)으로 출진하여 그해 6월 6일부터 7일에 걸쳐 벌인 시카노시마(志賀島)의 해전에서 작은 배로 몰고 몽고의 군선에 다가가 기습공격을 가하여 불을 지르는 등 다소 전공을 세웠으나, 부상을 입고 배 안에서 전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물에게 딸이 있어, 그 딸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다가 죽은 것을 기려 오뚜기 인형에다 그녀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이 히메다루마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히메다루마의 기원에는 정해진 확실한 것이 없고,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과 몽고의 일본침입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중첩되어있다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이다. 사실 에히메 지역사람들도 후자인 몽고침입에 따른 전사한 미치토키의 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현재 「다루마 히메」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일체 설명하지 않고, 「여러 설이 있

4) 道後商店街HP : <http://town.ehime-iinet.or.jp/dougo/map/index.asp>

으나」하며 말끝을 얼버무리고 신공황후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왜 이들은 몽고침입이 아닌 신공황후를 강조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다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 중에서 추정이 가능한 것은 에히메에서 차지하는 고오노 미치토키의 위치가 신공황후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미치토키는 활의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아버지 고오노 미치히사(河野通久)의 측실과 밀통한 사건으로 의절당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전사는 에히메가 아닌 현재의 후쿠오카 근해이다. 이에 비하면 신공황후는 여자천황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중앙의 권력자이다. 그리고 그녀는 해외정벌을 하고 돌아온 전쟁의 영웅인 동시에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진 응신을 낳은 황후이기도 하다. 더구나 지역의 전승에는 에히메에 들렀다는 이야기도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무명에 가까운 고오노 미치토키의 딸보다 신공황후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3. 에히메의 신공황후전승

신공황후에 관련된 전승이 에히메에는 의외로 많다. 지금까지 채집된 것만 보더라도 그것은 세도내해(瀬戸内海)와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그 내용도 다양한데,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 한반도로 출병할 때 들렀다는 곳의 이야기, 둘째, 한반도로부터 귀국하여 야마토로 돌아갈 때 들렀다는 곳의 이야기, 셋째, 출병 시와 귀국 시 모두 들렀다는 곳의 이야기, 넷째, 출병 시인지, 귀국시인지가 분명치 않고 다만 들렀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섯째는 지역의 인사가 신공 황후와 함께 삼한으로 출병하여 활약했다는 무훈담이다.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한반도 출병 시 귀향했다는 이야기는 이마바리(今治)지역에 많다. 예를 들면 가시마신사(鹿島神社)에 의거한 「타이메시(鯛めし)」라는 생선 도미의 요리에 대한 유래담이 그것이다. 즉, 「옛날, 신공황후가 조선으로 출진하기 위해 가시마명신(鹿島明神)에 들러 전승기원의 기도를 올렸을 때 지역의 어부들이 현상한 도미(鯛)를 길조로 여기고 기뻐하며, 그 도미를 밥과 함께 찌서 올

린 요리가 「타이메시(鯛めし)」이었다」고 되어있다.⁵⁾ 즉, 신공황후가 이 지역의 요리로서 유명한 「타이메시」의 유래담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마바리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카다지마(伯方島)의 주변 니와토리코지마(鷄小島)에도 있다. 일본어에서 「니와토리」는 「닭」을, 「코지마」는 작은 섬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 섬은 「작은 닭의 섬」이라는 뜻을 가진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특이한 이름을 가지게 된 유래에 대해 지역의 전승에서는 「신공황후가 삼한을 정벌하고 돌아올 때 배가 좌초하여 하카다지마에 머물고 있었을 때 삼한에서 가져온 금계(金鷄)를 이 섬에서 살게 했다 하여 니와토리코지마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신공황후담은 지명의 유래담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 의하면 설날 아침에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신이 있다 한다.

둘째, 귀국 시 들렀다는 이야기는 마즈야마시의 아사히하치만신사(朝日八幡神社)에 있다. 여기서는 신공황후가 삼한 출병을 하기 위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규슈로 가던 도중 들렀다는 전승을 가지고 있는 신사이다. 따라서 신사의 제신으로 신공황후와 그의 아들 응신을 모시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 출병 시와 귀국 시 모두 들렀다는 이야기는 마쓰마에(松前)의 타모우하치만신사(玉生八幡大神社)에 있다. 마쓰마에초 교육위원회(松前町教育委員会)가 신사의 입구에 세워놓은 신사의 안내판 설명문에 「중애천황 9년(200) 신공황후가 삼한으로 갈 때 이곳을 잠시 들러 솟아나는 맑은 샘에 전승에 관해 점을 쳤는데, 그 때 천이 짙게 감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를 길조로 여기며 좋아하며, 이곳을 「고이조메노사토(濃染の里)」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귀국 시에도 이곳에 들렀는데, 이번에는 천신의 신탁으로 인해 구시미타마(久欺美玉)를 타모우 숲(玉生林)에 모셨다고 한다. 이를 후세의 군사(郡司)가 이곳에 신사를 세우고 구시미타마궁(久欺美玉宮)이라고 한 것이 본 신사의 출발이다」는 것이다.⁶⁾ 즉, 신공황후의 전승으로 지역과 신사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신사이기에 신공황후를 비롯해 중애천황 그리고 구시미타마의 상징물인 타모우석신(玉生石神)을

5) 愛媛県庁, 홈페이지 「郷土料理の紹介」 참조.

(www.pref.ehime.jp/nan53123/yawatahama-hc/hokenjo/resipi/04resipi08.html)

6) 신사의 안내판에 적힌 내용은 松前町 교육위원회 측이 한 것이다. 위의 내용은 2016년 7월에 방문하였을 때의 것을 근거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넷째, 여하튼 신공황후가 들렀다는 곳의 이야기는 하부야마(垣生山) 주변 지역에 있다. 이곳에는 신공황후가 탄 군선을 묶고 정박했다는 곳이 산의 남쪽 오멘토산(女乙山)의 법천사(法泉寺)와 오멘토신사(女乙神社=乙女宮)이며, 또 신공황후가 탄 군선을 묶었다는 무쿠노키(ムクノキ)라는 나무가 있다고 한다.

다섯째는 신공 황후와 함께 삼한으로 출병하여 활약했다는 지역 무사의 이야기는 이마바리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요의 호족 고오노씨(河野氏)와 이마바리의 간노미야(神宮)의 호족 와카미오노미코토(若弥尾命)의 이야기이다. 전자는 고오노씨의 선조인 오치 다카나와(越智高繩)가 현재 호조시(北条市)의 다카나와야마(高繩山)라는 산 정상에 성을 쌓고 살았는데, 그가 신공황후가 삼한정벌에 나섰을 때 함께 신라에 가서 활약했다고 전해진다. 그에 비해 와카미오의 활약상은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사례5>

옛날 신공황후가 다케우치스쿠네와 함께 회임 중에 남자의 복장을 갖추고 군선을 이끌고 삼한정벌에 나섰을 때 아키(安芸国=현재 広島県 서부)의 아키 하야타마노미코토(飽速玉命)의 손자에 해당되는 와카미오노미코토(若弥尾命)가 군졸의 한사람으로서 대활약을 한 적이 있다. 신공황후가 신라를 치려고 하던 날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황후가 타고 있던 배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이때 군졸들은 모두 전율을 느끼며 두려워하여 어찌할 줄 몰라 했다. 이를 지켜보던 와카미오노미코토가 혹시나 황후에게 위해를 가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즉시 그 자리에서 커다란 화살을 끄집어내어 활에 끼우고 호랑이를 겨누어 힘껏 잡아당겨서 쏘았다. 그러했더니 놀랍게도 한발에 명중하여 호랑이가 쓰러졌다. 이에 군졸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싸움에 나가 크게 승리하였다. 이러한 활약에 크게 기뻐한 신공은 와카미오노미코토를 노마(怒麻=野間)의 구니즈미야즈코(国造)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와카미오노미코토는 자기 살던 곳을 떠나 이곳으로 부임하였고, 또 지역의 여성 노마히메노미코토(野間姫命)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며 노마지역을 개척했다⁷⁾.

여기에서 보듯이 신공황후담은 지역 호족들의 무용담으로도 활용되었다. 현

7) 今治商工会議所, 「今治地方の伝説集」

www.imabaricci.or.jp/contentscii.php?prm=densetsu_1 (검색일:2016.08.14.)

재 노마신사(野間神社)에서는 와카미오노미코토의 부부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물론 이상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신공황후 자체가 가공적인 인물인데다가 호랑이가 바다에 떠있는 군선을 향해 던벼들었다는 설정 자체가 설화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의 모델이 되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호랑이의 존재를 일찍부터 알았다. 그 예로 고대의 가요집인 『만엽집(万葉集)』(16권-3833)에도 「호랑이를 타고 옛집을 날아 넘어가 교룡(蛟竜)을 사로잡아오는 명검(劍大刀)을 가지고 싶구나(虎尔乘古屋乎越而青淵尔 蛟竜取将来劍刀毛我)」⁸⁾라는 노래가 실려져 있고, 그 보다 시대가 뒤인 10세기에 성립된 『연희식(延喜式)』에서도 「호피(虎皮)」에 관한 기술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이 호랑이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호랑이는 위의 설화와 같이 일본에서는 곧잘 무공담과 결부되어 회자되곤 했었다. 그 중에서 기록상 일본 최초로 한반도의 호랑이를 퇴치한 사람은 노마지역을 지배한 와카미노오미코토가 아니라 가시와테노오미 하스히(膳臣巴堤便: 이하 줄여서 하스히라 함)였다. 그에 관한 기록은 『일본서기』의 「흠명(欽明)」조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6>

하스히가 흠명의 명에 의해 백제로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아내와 자식도 함께 따라갔다. 이들은 바닷가에 도착하였을 때 해가 저물어 그곳에서 잤다. 그때 자식이 갑자기 사라져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그 날 밤은 많이 눈이 내렸다. 날이 밝자 찾기 시작하자 호랑이 발자국이 눈 위에 계속 이어져 있었다. 그는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발자국을 따라가 호랑이 굴을 찾았다. 칼을 빼어들고 「천황의 명을 받고 산야를 헤매고, 비바람을 맞으며 풀잎을 베개로 삼아 자면서 고생한 것은 사랑하는 자식으로 하여금 나의 가업을 이어가게 함이었다. 신은 나에게 자식을 한명 주었지만, 오늘 밤 그 자식이 사라졌다. 발자국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러 여기에 왔다」고 했다. 그 호랑이는 잡아먹으려는 듯 입을 벌려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하스히는 재빨리 왼손을 집어내어 호랑이 혀를 잡더니 오른 손에 든 칼로 찔러 죽이고 껍질을 벗겨 가지고 귀국했다⁹⁾.

8) 桜井満訳註(1977) 『万葉集(下)』 旺文社, p.180.

이상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백제로 파견된 하스히는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머물다가 자식이 호환을 당하여 호랑이에게 복수한 이야기이다. 얼핏 보아 <사례5>와 내용상 크게 차이를 보이거나 이야기의 발단이 모두 한반도를 설정하고 있고, 또 호랑이가 바닷가(또는 바다)에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설화가 미묘하게 일치를 보인다. 그러므로 구비전승으로 내려오는 <사례5>가 기록으로 된 <사례6>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오히려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공황후의 전승담 그 자체가 중앙의 기록에 수록되어있고, 그것이 하치만신앙(八幡信仰)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신공황후담도 그와 더불어 확대되기 때문이다.

노마신사는 창건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속일본기(續日本記)』에는 「노마신(野間神)」, 『삼대실록(三代実録)』에는 「노마천황신(野間天皇神)」, 『연희식(延喜式)』의 「신명장(神名帳)」에는 「노마신사(野間神社)」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선대구사본기(先代旧事本記)』(卷10)의 「국조본기(国造本紀)」에 「신공황후의 시대에 아와노구니츠미야쓰코(阿波国造)와 같은 선조 아키하야타마(鮑速玉命)의 3세손 와카미오노미코토(若弥尾命)가 노마노구니노이마쓰코(怒麻国造)로 임명되었다」는 기록도 있다¹⁰⁾. 그러므로 와카오미노미코토라는 인물은 실제로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신사 또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신사가 신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창건 당시에는 신사 측의 설명처럼 와카미오노미코토의 선조인 아키하야타마노미코토(鮑速玉命)를 모셨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선대구사본기』의 내용이 <사례6>의 영향을 받아 <사례5>와 같이 확대 재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호족들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신공황후담은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에히메 지역에 있어서 신공황후담은 세도내해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다. 더구나 「히메 다루마」를 만들어낸 마쓰야마의 도고온천지(道後温泉地)에도 신공황후담은 강하게 남아있었다. <사례3>과 같이 신공이 신라로 가던 도중 도고에 들러 온천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곳의 이사니와신사(伊佐爾波神社)는 그 때 머물렀던 곳에 세운 신사였다는 전승도

9) 井上光貞 監訳(1987) 『日本書紀(下)』 中央公論社, pp.64-65.

10) 菅野雅雄 訓註(2008) 「<<先代旧事本紀>>卷第十 国造本紀」 『歴史讀本(12)』, 新人物往來社, p.179.

있다. 더구나 이사니와신사는 「유즈키 하치만(湯月八幡)」, 「도고 하치만(道後八幡)」로 불릴 만큼 응신천황(譽田別尊), 중애천황(足仲彦尊), 신공황후(氣長足姬尊)의 3명의 가족들을 모두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하치만(八幡)계열의 신사이다. 그러므로 이 신사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있는 도고온천지에서는 당연히 신공황후의 신앙이 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도고는 661년 제명천황(齊明天皇)을 태운 배가 들렀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은 역사적 실재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여제인 제명천황의 한반도로 군사를 파견한 이야기를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¹¹⁾. 즉, 신공의 이야기에는 제명의 이미지가 중첩되어있다는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통일전쟁을 벌였을 때 일본의 제명천황은 백제를 돕기 위해 대거 군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백촌강(또는 白江) 전투에서 참혹하게 패배하였으며, 제명 그 자신도 규슈로 직접 가서 진두지휘하다가 68세의 나이로 죽은 비운의 여왕이었다. 역사학자 미즈노 유(水野裕)는 신공황후는 일본이 신라에게 대패한 역사적 사실을 심리적 보상하기 위해 그것을 뒤집어 이긴 역사로 바꾸기 위해 천지(天智), 천무(天武)천황의 시기에 만들어낸 가공의 신화가 신공의 신라정벌담이며, 그에 따라 그것의 모델은 제명천황이라 해석하고 있다¹²⁾.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명천황이 직접 들러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노래를 남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마쓰야마의 도고는 타 지역보다 신공황후에 대한 신앙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신공이 제신으로 되어있는 하치만계열의 이사니와 신사가 생겨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도고에서 만들어지는 히메다루마 인형의 유래를 신공황후담에서 찾게 된 것이었다.

4. 제작의 역사와 타 지역의 히메 다루마

그렇다면 에히메현에서 히메다루마는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721년(享保 6)에 성

11) 水野裕(1985) 『日本古代の国家形成』 講談社, p.170.

12) 水野裕(1985) 앞의 책, pp.164-170.

립된 『도고온천(道後温泉)』이라는 서적에 만들어진 것을 보았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에히메에서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¹³⁾. 그러나 내용이 너무나 짧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의 것과 비교하여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히메 다루마」에는 재질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종이로 만든 하리코(張り子), 실을 감아 만든 이토가케(糸かけ), 화려한 색깔의 비단으로 오려 붙여 만든 킨란(金欄)이 있다.

그 중 하리코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현재 료무라(両村家)의 사람들이 제작하고 있는데, 가업으로 4대째 내려가고 있다. 현재 4대는 노부에(信恵)씨(松山市鴨川, 1951년생)이다. 그녀가 제작하고 있는 기본 모델은 1871년(明治4)에 이들의 선조인 료무라 토라조(両村虎蔵)가 고안한 것으로 쓰바키마즈리(椿祭り) 때 행운을 부르는 인형으로 팔았다고 한다. 그 후 그의 아들 사다스케(貞助)와 고신(光真)이 대를 이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는 가운데 고신은 목형을 도자기로 바꾸기도 했다. 왜냐하면 하리코를 벗길 때 예리한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형은 부서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45년 연합군 측의 마쓰야마 공습 때에도 불에 타지 않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고신의 아들 타구미(巧)가 가업을 이어 3대째 작업을 하다 1978년(昭和53)에 젊은 나이로 사망하는 바람에 한때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카에씨의 노력으로 며느리 노부에씨가 가업을 이어받아 4대째 인형을 제작하고 있다.¹⁴⁾

이처럼 하리코의 히메 다루마 인형 제작기법은 초대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순탄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노부에씨의 말에 따르면 특히 3대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제작기법이 제대로 4대에게 전해지지 않은 상태이었다. 그에 따른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특히 얼굴제작이 가장 어려웠다 한다. 현재의 얼굴이 완성될 때까지 2, 3년은 주문을 받지 않았으며,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오늘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한다. 그러는 과정 동안 「히메 다루마」의 표

13) 이 부분은 愛媛県生涯学習センター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えひめの記憶」이라는 서적 중 『愛媛の技と匠』(제3장 제2절에 수록된 「愛媛の姫づくり」)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14) 각주 13)과 동일.

정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겨났다. 3대까지 만든 「히메 다루마」는 눈꺼풀이 산 처럼 두껍게 되어있어 눈의 표정이 또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대 토라조의 아내가 고안한 것으로 료무라가(兩村家)가 제작하는 전통적인 표정이었지만, 현재는 이를 변화시켜 눈꺼풀을 편편하게 함으로써 부드러운 눈길로 되어있다. 이것도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토가케의 「히메 다루마」는 야마다가(山田家)의 사람들이 제작했었다. 그것을 처음 제작한 사람은 야마다 미네마츠(山田峯松)씨였다. 1932년에 그는 하리코의 「히메 다루마」인형을 몸에는 종이가 아닌 자수의 실로 감고, 얼굴 부분은 비단 천을 붙이는 방법으로 인형을 고안 제작하여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 이후 야마다씨는 사이타마현(埼玉県) 인형의 산지인 이와쓰키(岩槻)에도 드나들며 보다 귀여운 인형을 만들기에 노력하기도 했다.

그는 또 1958년 현재 천황이 마사다 미치코(正田美智子)와 약혼을 하였을 때 마사다가(正田家)에 축하의 의미로 자신의 대형 작품 히메 다루마를 보낸 적이 있다. 그 때 마사다가로부터 「지난날 훌륭한 케이스에 넣은 다루마 인형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선물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기에 1개월간 장식한 다음 그 후에는 시나가와구(品川区)에 있는 병원(산부인과)에 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아무쪼록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¹⁵⁾.

그 후 미네마쓰씨의 뒤를 이은 것은 그의 아들 야마다 가즈오(山田一雄: 松山市松前町, 1929년생)였다. 가즈오씨는 한때 우체국에 근무하였으나 1953년에 퇴직하여 아버지로부터 10여년간 틈틈이 배운 제작 기술을 살려 부인 야마다 다미코(山田多美子: 1934년생)씨와 함께 인형 제작에 몰두하여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이은 사람은 없어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이들 부부의 말을 들으면 다음과 같다. 즉, 「제작 공정이 무릇 63개나 될 정도로 매우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가령 잘게 자른 신문지를 다루마 인형의 목형에다 20번 정도 반복해서 붙여서 말려야 하며, 다 건조가 되면 전면부와 후면부로 갈라서 형으로 떼어내어 밑바닥과 얼굴 주위 및 등에 실을 걸기 위해 바늘로 구멍을 뚫고, 또 밑에는 점토를 바른 다음에 몸에다 실을 하나 하나씩 바늘로 감아야 하고, 꿈

15) 각주 13)과 동일.

끔한 공정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전성기를 누렸던 1950년, 60년대에는 3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분업의 형태로 작업을 하여 만들었으나, 그들도 점차 나이가 들고 건강과 가정의 문제로 차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경험과 기술을 필요한 것에 비해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화려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계승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다」고 한다¹⁶⁾.

킨칸의 「히메 다루마」는 공정이 까다롭고 만들기 어려운 이토가케의 것을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단적인 예로 몸통을 「스치로폴」로 하고 얼굴도 따로 만들어 붙인 다음 그 주변을 화려한 문양이 들어있는 천으로 옷을 입히고 치장하여 만들기 때문에 이토가케보다 몇배나 공정이 간략화 되어 있다. 현재 에히메 마쓰야마 출신인 다나카 카즈미(田中勝美: 1938년생)씨가 50여년 동안 이것을 만들고 있다. 2002년 그녀는 에히메현 지정 전통특산품의 전통적 기술의 계승자로서 「에히메 전통공예사」로서 인정을 받았다. 다나카씨는 현재 붉은 계통의 옷을 입은 것과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것 두 가지 종류의 것을 만들고 있는데, 전자는 부드러운 눈을 가진 여성이고, 후자는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남성의 인형인데, 전자는 안산기원과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고, 후자는 필승기원에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히메 다루마」 제작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그다지 오래된 것은 아니다. 19세기 때 료무라 토라조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가 남성의 얼굴만 고집해왔던 전통적인 다루마 인형을 여성으로 바꾸고, 그 모델을 신공황후의 전승에서 찾음으로써 에히메의 「히메 다루마」가 역사성을 가진 인형으로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사례1>에서 에히메의 향토 장난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듯이 마치 그것이 그들만이 가지는 고유의 문화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의 말처럼 과연 「히메 다루마」는 에히메에만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기원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여성의 다루마」 인형을 지역의 특산물로 내세우고 있는 곳은 에히메 이외에도 오이타현(大分県)의 다케다(竹田),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의 고야산(高野山), 그리고 에히메와 같은 시코쿠에 위치한 고치(高知)에도 있다. 그 가운데 다케다의 것은 타지에도 많이 알려진 것으로 그것과 관련된 기원설화도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6) 각주 13)과 동일.

<사례7>

옛날 다케다에 아야쥬(綾女)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은 하급무사 사이카(雜質)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봉록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 불행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 내리는 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무사의 아내라는 체면도 있고, 출가의 인이기 때문에 시집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창고 앞에서 앉아서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초 이튿날(당시 설날에는 집에서 바깥으로 한걸음도 나가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에 발견하고 집에 데리고 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극진히 보살핀 결과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 후부터 이상하게도 일이 가족들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일도 잘 풀리고, 또 남편이 승진하여 살림도 여유가 생겨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다¹⁷⁾.

이상에서 보듯이 다케다의 히메 다루마는 에히메와 같이 신공황후가 모델이 아니라 하급무사의 부인 아야쥬를 모델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인형의 용도는 현재는 「상업번창」까지 확대되어 있지만, 원래는 「개운(開運)」, 「가정원만(家庭円滿)」의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제작방법은 종이를 목형에 붙여져 만드는 하리코의 방법이다.

이러한 인형제작의 이면에 다케다의 설날 민속이 감추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설날이 되면 마을사람들에 의해 선발된 호기토(祝人)라는 사람이 집집마다 돌며 “일어나라. 일어나라”하면서 현관 또는 출입문에 오뚜기 인형을 놓고 가는 것이 있다. 이것이 대개 정월 2일 새벽에 이루어지며, 근대이전까지 계속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인형을 「오키아가리(넘어져도 일어서는 오뚜기)」, 또는 「복녀(福女)」라고 했다. 이러한 민속놀이와 아야쥬의 열녀 전설과 결부되어 「히메 다루마」가 지역의 명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곳도 에히메와 같이 민속과 제작기술의 전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호기토가 연초에 다루마 인형을 배부하는 민속이 大正 말기까지 지속되었으나, 그 이후 사라졌으며, 또 인형제작자도 과거에는 5, 6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토 히메 다루마 공방(後藤姫だるま工房)」을 운영하는 고토가(後藤家)의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들도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다. 초대 고토(後藤恒人)씨가 1952년경 오래된 집에 히메 다루마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작을 재개하고, 그

17) 이 부분은 後藤姫だるま工房의 久美子씨의 다케다 「히메 다루마」의 기원을 설명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명칭도 「히메 다루마」로 통일시켰다고 한다. 현재에는 2대째 내려가 고토 아키코(後藤明子)씨가 가업을 계승하여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야산의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재질은 흙이며, 방울의 형태로 취하고 있다. 그곳은 옛날부터 철저히 여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던 수행처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산 입구 여인당(女人堂)에 머물면서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것을 연상하여 여인의 모습을 한 다루마 인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치의 것은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히메 다루마」라 하지 않고 「온나 다루마(女達磨)」라고 한다. 지역의 전승에 의하면 이것은 문화연간(文化年間: 1804-1818)에 도사(土佐)의 야마우치번(山内藩)이 에도(江戸: 현재 동경)에서 가지고 온 하리코 인형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 한다. 이곳에서는 여자아이의 무사성장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애용되고 있다.

이처럼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루마 인형은 에히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규슈의 다케다, 혼슈의 와카야마, 시코쿠의 고치에도 있었다. 지역에 따라 그 용도도 조금씩 달리하여 에히메에서는 결연, 안산이지만, 고치에는 여자아의 무사성장이며, 다케다는 개운과 가정원만인 점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 판매되는 시기가 모두 근대 이후부터 시작되는 공통된 특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히메 다루마」는 에도시대부터 시작된 달마대사를 모델로 한 남성 중심의 다루마 인형에서 파생된 근대의 지역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에히메의 「히메 다루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것은 에히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있으며, 이들 모두가 근대 이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 따라 모양은 약간씩 차이가 나며,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에히메만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그 유래에 관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몽고침입 때 전사한 고오노 미치토키의 딸이라는 설과 고대한국을 정벌한 바가 있다

는 신공황후가 히메다루마의 모델이 되었다는 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지금까지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은 후자에서 그 원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의 영웅보다 중앙의 영웅인 신공황후가 아마토를 출발하여 이곳에 들어서 신라로 갔다는 지역의 전승을 더욱더 중시한 결과이었다. 오늘날에는 전자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처음에는 장인들이 만들어 낸 「히메 다루마」는 여느 지역 다루마의 인형과 같이 붉은 옷을 입고 손발이 없고 통통한 몸매다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전통적인 달마대사를 모델로 한 다루마 인형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히메 다루마」를 만드는 장인들은 그것을 감춘 채 신공황후가 자신들의 고향에서 머물면서 응신천황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검은 옷차림을 하고 눈썹을 치켜세우고 앞면을 응시하는 「히메 다루마」도 새롭게 개발되어있다. 이것은 임신한 몸으로 갑옷을 입은 무장한 모습이라고 장인들은 부연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그들은 「히메 다루마」의 원형을 신공황후의 모습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끈질기게 집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에히메의 「히메 다루마」가 탄생하여 일반인들에게 확대되던 명치 시기는 일본이 해외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릴 때였다. 이 시기에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담은 신공황후담은 당시 위정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신공황후에 대한 민간신앙이 전쟁의 신인 하치만(八幡) 신앙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활발하게 재생산되었다. 에히메현은 타 지역보다 신공황후 전승과 하치만계 신사가 많이 분포되어있다. 그리고 특히 「히메 다루마」를 만드는 도고는 에히메현의 하치만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이사니와 신사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치(明治) 시기에 일어난 신공황후 신앙의 유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태어난 것이 신공황후를 모델로 하는 에히메의 「히메 다루마」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누누이 언급하였지만 신공황후담의 기저에는 역사적 사실과 정반대의 고대한국의 정벌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감춘 채 <사례1>에서 보듯이 「4세기 무렵,

신공황후가 도고온천에 머물렀을 때, 회임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내력을 가진 인형을 국제공항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 따라서 즉각 판매대에서 철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사가지고 가는 한국인이 나중에 그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일본 에히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여 친한 한국인 친구에게 선물하는 일본인(에히메현민)이 나중에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있는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도 국제공항에서의 이 인형의 판매는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노성환(1995) 『한일왕권신화』 울산대출판부, pp.199-203.
 노성환 역주(2009) 『고사기』 민속원, pp.209-213.
 황패강(1980) 「일본 신화 속의 한국」 『한국학보(20)』, 일지사, pp.20-21.
 井上光貞 監訳(1987) 『日本書紀(下)』 中央公論社, pp.64-65.
 菅野雅雄 訓註(2008) 「<<先代旧事本紀>>卷第十 国造本紀」 『歴史讀本(12)』 新人物往來社, p.179.
 水野裕(1985) 『日本古代の国家形成』 講談社, pp.164-170.

논문 투고 일자 : 2016. 09. 21.

논문 심사 일자 : 2016. 11. 02.

게재 확정 일자 : 2016. 11. 03.

 <要旨>

愛媛県の「姫だるま」と神功皇后伝承

魯成煥

本稿は愛媛の「姫だるま」の起源と特徴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説話上ではその起源を蒙古侵入の際に戦死した河野通時の娘、あるいは新羅を征伐したという神功皇后に求めている。しかし最近では、地域の英雄より中央の英雄である神功皇后が大和を出発してここに寄って新羅に行ったという地域の伝承をより重視した結果、前者より後者にその原型を求める傾向が強い。そのために今日は前者に関する話は殆んど聞かれないほど地域民の記憶から消えている。このように「姫だるま」の起源を中世や古代の人物に求めているが、実際それが本格的に生産されたのは明治時代からである。この時期に海外への進出に成功したという内容を含む神功皇后譚は、当時為政者を含め一般人から注目を集めるのに充分であった。明治時代は神功皇后に対する民間信仰が戦争の神である八幡信仰とともに全国的に広がり、活潑に再復活した時期である。愛媛県は外の地域より神功皇后伝承と八幡系神社が多く分布している。そして特に「姫だるま」を生産している道後には、愛媛県における八幡信仰の中心である伊佐爾波神社があるところでもある。このような地域的特性故に、明治時代に起った神功皇后信仰の流行から逃れ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こうした時代的背景から神功皇后をモデルとする愛媛の「姫だるま」が生まれたと言える。

A study of <Hime Daruma> in Ehime Japan

No, Sung-Hwan

This paper is about the research on the origin and the feature of Hime Daruma in the Ehime prefecture. It is believed that Hime Daruma was originated from the Kouno Machitoki or Empress Jingu. Recently, however there are strong signs that Empress Jingu's legend is gaining ground. Because of this, it is very hard to hear the story of the Kouno machitoki's legend from the local people. Even though these perspectives are from the Ancient times and Middle-Ages, is a the making of Hime daruma begins from the Meiji period. The Empress Jingu's legend, successful story of the overseas invasion arrested politicians and public attention during the Meiji period. In fact, the Hachiman beliefs and Empress Jingu's legend starts to be reproduced and spread all over the Japan from this time. The Ehime region is the place where many Hachiman shrines and Empress Jingu's legends are located across Japan. From these historic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Ehime's Hime Daruma is originated from the Empress Jingu's legend.